



한국아나운서클럽회보

2022년 3월 15일

제 45 호

• 발행인: 박찬숙 • 편집장: 이현우
• 편집위원: 채영신 황인우 권혁화
유영미 유지현 오유경

발행처 사단법인 한국아나운서클럽 06544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270, 119-1102 E-mail annaclub7@naver.com ☎ 010-9025-4663

올해도 코로나로 정기 총회 일정 변경

정기 감사 결과, 이월액 대폭 증가로 재정 안정화 이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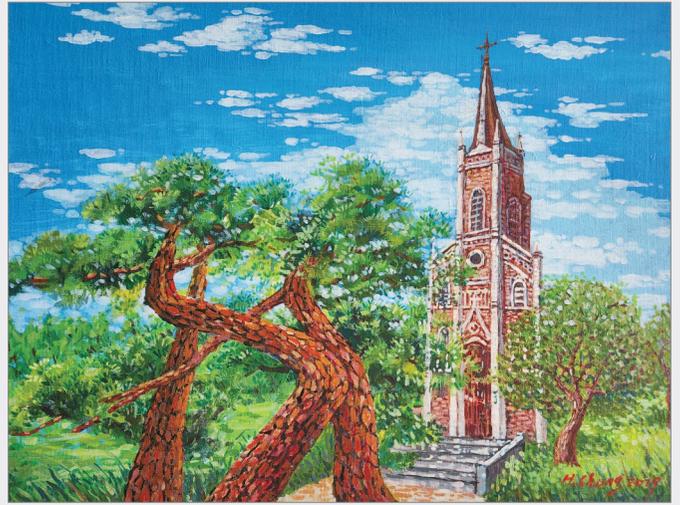
박찬숙 회장

코로나19의 변종인 오미크론의 확산세로 인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정기 총회 개최에 차질이 빚어졌다.

(사)한국아나운서클럽(회장 박찬숙)은 3월 11일로 공지했던 정기 총회를 비대면 회장단 의결로 대체했다. 2021년도 결산안과 금년도 예산안 및 사업 계획을 아나운서클럽 단체 특방에 게재하고 이의 신청을 거쳐 회장단 결의 내용을 추인받을 예정이다.

금년에도 미납 연회비 독려 및 적극적인 후원금, 광고 협찬 사업에 역점을 두고 2022년 예산안을 지난해 수준으로 편성했으며, 회원간 우의를 다지는 클럽 행사도 변동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연회비 납부 회원은 한국아나운서클럽의 회보 및 각종 책자 수령, e-전자수첩, 클럽 경하·근조기 전달, 다양한 문화 행사 참여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한편 아나운서클럽 정기 감사가 2월 10일 오전 11시에 여의도에서 진행되었다. 채영신 사무총장이 조건진 감사에게 2021년도 클럽 회계와 업무 집행 사항 관련 서류 등 증빙 자료를 전달, 일체 적법하게 운영되었음을 인정받았다. 이후재 부회장도 참관한 이번 감사 결과, 아나운서클럽은 전년도 재정 내실화로 연회비와 후원금, 광고 협찬 수입이 증가되어 전기前期 이월액이 3,000여 만 원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신춘희호

천년의 기도 53×43.5cm 캔버스에 아크릴

- 2015. 대한민국미술총람전 올해의 예술인상
- 2016. 7. 대한민국현대여성미술대전 특선
- 2018. 11. 현대조형미술대전 특별상
- 2019. 10. 대한민국현대여성미술대전 초대작가상
- 2019. 10. 정홍숙 초대전, 파티오25
- 2019. 11. 제회 공세유신진작가공모전 신진작가상
- 2020. 7. 국제예술협회 창립전 참가
- 2020. 9. 인사동사람들 정화원, 초대작가로 특별전 참가



회화 작가 정홍숙 운영위원

1962~65 MBC 아나운서, 1969~74 미시간주립대학 연구 교수, 1982~2005 중앙대 가정대학장, 2009~20 유리디체아카데미(음악감상회) 회장, 2017~ 현재 이석환의 음악여행 고문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빛낸 스포츠캐스터들

이현경 김초롱 엄지인 정지원 등 여성 캐스터 활약 돋보여



SBS 이현경, 이호정 해설위원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제24회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2월 4일부터 20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국내 방송사들은 최소한의 인원만 현장에 파견하고 일부 종목은 'OFF-TUBE' 방송을 했다.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은 2020 도쿄 올림픽에 이어 코로나 팬데믹 속에 열린 두 번째 올림픽으로 올림픽 방송단은 역대 올림픽의 2/3에 준하는 축소된 인력만 현장에 파견, 국내 방송팀과 협업하며 역동적인 장면과 감동을 국민에게 선사했다.

KBS는 이재후·이광용·남현중, MBC는 허일후·김나진·김초롱, SBS는 배성재(전 SBS) 캐스터와 이현경·주시은 아나운서를 현장에 파견했고, 국내 스튜디오에서도 담당 캐스터들이 현장 못지않은 뜨거운 활약을 보여 주었다.

각 방송사는 시대 정신에 입각해 여성 캐스터들에게도 주요 종목을 맡겨 성장의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피겨 스케이팅의 SBS 이현경·MBC 김초롱, 스노보드의 KBS 엄지인, 프리스타일 스키를 중계한 KBS 정지원 아나운서는 고생스러웠지만 캐스터의 매력에 푹 빠진 귀한 경험을 했다고 입을 모았다.

이현경 아나운서는 “베이징 현장에서 수십 차례 코로나 검사를 하면서도 피겨 종목의 아름다움과 최고의 선수들을 만난 것은 큰 보람이었다.”, KBS 남현중 아나운서는 “‘연아 키즈’들의 첫 올림픽을 현장에서 중계하며 한국 피겨의 미래를 확인할 수 있었다.”, 김초롱 아나운서는 “올림픽 현장에서 무엇보다 선수들의 열정을 가까이서 보고 전하는 캐스터의 막중한 책임을 절감했다.”라고 소감을 전해왔다.

2022 동계 올림픽은 중국의 편파 판정과 러시아 선수의 약물 중독 등 비매너적인 행동으로 많은 우려와 비판을 받았지만, 올림픽 캐스터들은 상황에 맞는 ‘사이다 발언’과 ‘센스 있는 표현’ 등 ‘깊은 공감형’ 중계를 선보였고, 전문성을 살린 수준 높은 방송으로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포착, 국민 스포츠 수준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마이크 올림픽’의 주역이 되었다.

유영미 편집위원

박선영 회원, 서울시교육감 출마

제3회 한원채인권상 특별상 수상



박선영(전 MBC) 회원이 오는 6월 1일 치러질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201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36.15%의 득표율을 기록한 박선영 회원은 MBC 아나운서와 기자, 제18대 국회의원, 동국대 법대 교수 등을 지냈고, 현재 사단법인 물망초 이사장, 21세기 교육포럼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박선영 회원이 3월 5일, 북한인권운동가에게 주는 한원채인권상 특별상을 수상했다. 민간 차원에서 북한 주민과 탈북인의 인권을 증진 시켰고, 탈북 청소년을 위한 물망초학교, 탈북 대학생 학업 지원 및 장학 프로그램, 성인 탈북인을 위한 물망초열린학교 등을 운영한 공로이다.

김성길 편집장에 이어, 제3대 이현우 편집장 선임



이현우(전 MBC) 편집위원이 한국아나운서클럽회보의 제3대 편집장을 맡았다.

초대 황인우 편집장에 이어 지난 1년간 회보를 꾸려온 김성길 편집장이 올 봄부터 베트남 국민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원으로 일하게 됨에 따라 이현우 편집위원이 바통을 넘겨 받았다.

“여러모로 부족한데 편집장을 맡게 되어 당황스럽다. 그저 징검다리 건너가듯 조심조심 노력하며 아나운서클럽의 명예를 위해 소임을 다하겠다.” 라고 밝힌 이현우 편집장은 1977년 3월 MBC에 입사, 2008년 9월 정년퇴직 후 관련 자격증을 취득해 제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원으로 활동 중이다.

다음 정례모임 겸 제8회 황금메아리상 시상식
5월 26일(목) 오후 5시 퍼시픽호텔 개최 예정



초대석 TV 개국 당시 아나운서실장, 60년 넘어 막내 실장과 만나다

황우겸(전 KBS) 고문 김태규 KBS 아나운서실장 특별 대담

실장으로 발령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나운서클럽 선배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60년 전 KBS TV 개국 당시 첫 아나운서실장을 현 아나운서실장이 만나 보면 어떨겠는가' 말입니다. 처음 든 생각은 '반세기 보다 전에 실장을 하신 선배님을 만나다'는 사실이 가능한 것인가 이런 느낌이었지요. 물론 그분이 황우겸 선배님 이란 걸 듣고는 바로 현실임을 알게 됐습니다. 지난 2월 21일 여의도에서 실제로 뵈고 보니 요즘 보행은 불편해지셨으나 말씀에 열정이 넘치신 분이러, 두 시간 가까운 대화에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한국 아나운서클럽, 한국청년회의소 JC를 창립하고 워낙 여러 분야에서 많은 일을 하셔서 나눈 대화는 많지만, KBS 아나운서로서 황우겸 선배님의 방송 소회 위주로 이제 그 내용을 풀어 드리겠습니다.

글 김태규(KBS)

선배님과 저는 실장 취임이 60년 차이가 나는데, 오랜만에 실장실을 찾으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하하하, 60년이라고? 듣고 보니 '참 오래 살았구나' 싶고, 특별히 오늘은 무척 기쁘고 반갑고 그런 마음입니다. 난 1951년 9월에 입사해 박봉에도 스포츠 중계, <스타탄생> MC로 구성과 섭외까지 하며 젊음을 다 바쳤지요. 그러다 3.15 부정선거, 4.19를 거치며 '방송 중립화'를 선언하고 인기만으로 살 수 없어 퇴사했다가, TV 개국요원으로 1961년 9월에 재입사했던 곳입니다.

현재 본사에는 100여 명의 아나운서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때는 몇 분이 계셨나요?

30명 정도였죠. 1961년 12월 31일 TV 방송을 개국하고 내가 실장이 됐을 때는 교양계장이라고, 지금의 시사교양국장 같은 업무도 겸했어요. 뉴스와 스포츠는 물론 MC로 활약하며 2년 반 동안 TV 방송의 틀을 잡느라 무척 바빴어요. 참, 그때 입사한 1호 공채 PD 중 한 명이 내부하 직원으로 일했는데 그 사람이 김 실장 입사할 때 사장이었던 홍두표 PD였어요. <나의 비밀>이란 프로그램이 첫 작품이었지요.

재직 당시 아나운서 선후배 관계는 어땠습니까?

아휴, 말도 마요. 선배를 하늘처럼 모시던 분위기였지. 삼 일에 한 번 숙직을 하던 시절이었는데, 후배가 선배 편히 주무시라고 이부자리 펴드리고 제일 늦게 자고, 새벽 5시 첫 방송을 하고 깨워 드리곤 했어요. 마치 군대 같아서 선배 대하는 것이 참 어려웠답니다.

황 선배님은 전무후무한 야구 선수 출신 캐스터이신데 첫 데뷔를 갑작스럽게 하셨다면서요?

1954년 12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1회 아시아야구대회 때입니다. 선배 캐스터와 같이 가, 선배는 중계를 하고 나는 견습생으로 옆에 앉아 있었지요. 그런데 경기 중간쯤 서울에서 전화가 왔어요. 중계방송 하던 선배 아나운서 음성이 저음이어서 라디오로 내용이 잘 안들린다고 항의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때는 외국에서 전파를 송출, 수신하기도 어렵고 아나운서 혼자 모든 상황을 전했으니 내용이 정확히 들리는 게 중요했지요. 그래서 다음 회부터 내가 갑자기 중계방송을 하게 됐지요. 그 선배에게는 무척 당황스러운 일이었겠지만 내게는 파격적인 깜짝 데뷔였던 것이지요.

그때는 해설자가 없었나요? 혼자 하는 중계방송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요?

혼자서 모든 걸 다 하는 상황이었지. 해설자가 따로 없으니 경기 자료도 혼자 준비하고, 경기 기록지도 직접 써가면서 중계해야 했어요. 중계방송 도중 자리를 바꿀 시간이 전혀 없어서 두 경기 연속 중계라도 할 때는 말하기 민망스럽지만 생리 현상을 자리에서 해결하곤 했답니다.

얼마 전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끝났는데, 요즘 후배들의 중계방송을 평가해 주신다면요?

참 잘하더라고 칭찬하고 군더더기 없는 진행이 돋보였지. 특히 스피드스케이팅 중계가 좋았어요. 요즘 지상파 외에도 매체가 많아지면서 중계방송 캐스터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듣는 시청자가 피곤한 느낌이 있는데, 오래 전 선배 캐스터로서 기본에 충실한 중계방송을 해낸 데 대해 높이 평가합니다.

요즘 중계 방송 하는 후배 아나운서 캐스터들에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여러 중계방송이 있지만 야구 위주로 후배들에게 한마디 전하면, 지금은 해설자가 있어 큰 도움이 되지만 각 종목의 규칙이나 기록 등 기본 지식은 물론이고 중간에 경기 뒷이야기를 잘 섞어주는 것이 중요해요.

나는 근무 끝나면 야구장에 달려갔지요. 선수도 만나고 감독과도 대화하며 여러 가지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었지요. 사흘에 한 번 숙직하는 데다가 항상 야구장에 가 있으니 아내에게 싫은 소리 들곤 했지요. 그렇지만 본인이 맡은 스포츠 종목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더 좋은 중계방송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중계뿐 아니라 각 분야에서 활약하는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도 오랜시간이 흘러서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아나운서실에 애정을 갖고 선후배를 돕고 믿으며 자기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항상 주어진 방송을 완벽히 해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겠죠. 하나 아쉬운 건 아나운서 후배들이 더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좋겠어요. 방송하기 위해 뽀뽀한 실력 있는 아나운서들이 있는데, 다른 직종이나 아까운 출연료 지불하며 외부 진행자들을 기용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기억에 남는 일화를 몇 가지 더 듣고 싶습니다.

당시엔 광고도 생방송으로 진행했어요. 요즘처럼 완성품을 송출하는 게 아니니까 광고도 NG가 나곤 했지요. 프라임 타임에 OB와 동아제약이 광고 섭외 경쟁을 벌인 적이 있었는데, OB가 훨씬 큰 기업이라 유리했지만 당시 분위기에 술 광고 하기가 쉽지 않아, 동아제약 박카스가 방송을 타게 됐어요. 그때 강신호 회장이 들고 오는 홍보용 박카스를 사원들이 원 없이 마셨던 기억이 납니다. 강신호 회장과는 그 인연으로 JC 활동까지 함께하며 평생지기가 됐지요. 만일 OB 맥주를 광고했다면 사원들이 맥주를 마셨을까요? 하하하

그리고 야구장에 햇빛이 들어오면 눈이 부시잖아요. 내가 햇빛 가리개 종이 모자를 만들어 봤는데, 이것이 쓸만해서 10년짜리 의장특허를 내기도 했어요. 선수 출신 캐스터로서 야구팬들에게 기여했다고 할까요? 한 가지 더 말하자면, TV 개국 3년차인 1964년, 인생의 전환점이 된 일입니다. 그때는 KBS가 정부 조직이라서 이른바 낙산 인사발령이 있곤 했지요. 육군 군악대장 출신 대령이 TV 국장으로 왔어요. 그 사람이 방송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어요? 게다가 성품이 좋지 않아 직원들이 힘들어했지요. 군대식으로 야외 직원 조화를 하곤 했는데, 한 직원이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었다고 혼을 내고 해고해버린 겁니다. 이에 분노한 직원들이 행정소송도 하고, 나를 포함한 TV 방송 제작 준비위원회 출신 10여 명은 사표까지 제출했지요. 결국 제작 대행사나 민영방송국 등으로 본의 아니게 이직하고 나도 기업에서 일하게 됐어요. 그때 사표 내지 않았다면 KBS 아나운서로서 정년퇴직 했을 겁니다.

여러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60년 실장 후배에게도 조언해 주시지요.

세상이 많이 달라진 했지만, 모름지기 실장이라면 몸가짐에 충실해야겠지요. 인기에 연연하지 말고 개인적 친분과 상관없이 능력에 따라 골고루 기용해야 하는데 말처럼 쉽지 않겠죠. 후배들에게 사안 하나 하나에 대해 이해시키려는 노력도 해야겠죠. 리더십이라는 게 잘하면 보통, 못 하면 비판받는 것이니까 참고해서 잘하리라 믿어요.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며, 끝으로 아나운서클럽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1967년 동심회로 시작해 아나운서동우회를 책임졌고 아나운서클럽까지 함께하고 있으니 얼마나 귀한 인연인가요. 퇴역 아나운서의 친정 같고 동창회 같은 소중한 아나운서클럽에서 함께 정을 나누며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회 | 원 | 동 | 정

전영우 고문, 하버드 글로벌 최고경영자 과정 특강 격조 있는 연설과 품위 있는 대화 방법 제시



전영우 고문이 국내 최초로 열리는 '하버드 글로벌 최고경영자 과정(HLP: Health-oriented new city&Global community development Leaders Program,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에메랄드룸)'의 특강 연사로 초빙되었다.

HLP는 하버드 의대 주관, 경영대·법대·보건대·응용과학대 교수진의 한국어 동시통역 화상 강의와 저명 인사 특강으로 진행된다.

3월 4일부터 시작된 HLP 특강에서 전영우 고문은 '격조 있는 연설과 품위 있는 대화'란 제목으로 쉽고 흥미로우며 유익해, 감동과 여운을 남기는 연설과 대화의 방법을 제시한다.

전영우 고문은 서울대 국어교육과 졸업 후 1954년 KBS 아나운서로 입사해, DBS·KBS 아나운서실장을 거쳐 수원대 인문대 학장, 아나운서클럽 제5대 회장을 역임했다. 1963년 'Speech Association of America' 정규 회원 가입 후 성균관대 석사, 중앙대와 성신여대에서 각각 박사 학위 취득 후 1998년 한국화법학회를 창립했으며, 문화포장 수훈, 서울특별시 문화상을 수상했다.

그동안 아리스토텔레스 『레토릭』 및 『니코마코스 윤리학』 번역, 『한국 근대 토론사 연구』, 『신국어화법론』, 『표준한국어발음사전』, 『짜임새 있는 연설』, 『스피치 아트, 우리말 화법』, 『토의 토론과 회의』 등 50여 권의 '스피치' 전문 분야 도서를 출간한 화법의 권위자이다.

유영미 편집위원, SBS 여성 아나운서 최초 정년퇴직

뉴스 앵커, 올림픽 캐스터, 라디오 제작·진행 등 다채롭게 활동



SBS에서 첫 정년퇴직 1호 여성 아나운서가 나왔다. 유영미 아나운서 부국장이 3월 말일자로 퇴직한다. 1991년 SBS TV 개국 공채 아나운서로 입사해 SBS 뉴스 장수 앵커, 동계 올림픽 캐스터, 라디오 <마음은 언제나 청춘> 아나운서 겸 피디로 다채롭게 활동해 왔다.

기뻐던 일은 2002 동계 올림픽 첫 피겨 여성 캐스터로 미국 솔트레이크 현장에 파견을 나갔던 것으로 그때 그 감동이 지금도 생생하다고 한다. 고통스러웠던 기억은, SNS 악플러들의 공격으로 누명을 쓰고 10년 넘게 피겨 중계에 공 들인 회사에 피해가 갈까 봐 스스로 피겨 스케이팅 캐스터를 그만두었던 일이다.

이제는 국민의 관전 수준이 높아져 지나친 성적주어나 애국심을 호소하는 시합이 아닌, 경기 자체에 대한 전문성과 아름다운 스포츠 정신을 좋아하는 팬덤이 많아져 다행이라고, 아나운서클럽과 함께하는 유 편집위원의 두 번째 청춘에 성원을 보낸다.

이장우(전 KBS) 투병 김승한 회원 위해 성금 전달



투병 중인 김승한(사진 중앙) 회원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을 전달했다. 제43호 회보 하단에 이계진(사진 왼쪽) 수석 부회장이 자비로 김승한 선배 따님이 운영하는 꽃집 '수미플라워' 광고를 실은 것을 보고 성금 30만 원을 보내온 것이다.

배성재(전 SBS) 축구 꿈나무 위해 3,000만 원 기부



2012년, 2014년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지난 1월 한국프로 축구연맹에 축구 꿈나무를 키우는 'K리그 드림어시스트'

운영비로 써달라며 3,000만 원을 기부했다. 'K리그 드림어시스트'는 한국프로축구연맹, 현대오일뱅크와 대한축구협회 축구사랑나눔재단이 함께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김규홍(전 KBS) 차기정(전 CBS) 트러스트포럼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2월 25일 서울 중구 퍼시픽호텔 남산홀에서 열린 제8회 트러스트

포럼(상임대표 최재형)에서 트러스트포럼 본부인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회장 황교안) 자문위원으로 임명되었다. 트러스트포럼 사무총장인 문무일(전 MBC) 회원과 류지현(전 SBS) 편집위원이 공동 진행한 포럼에서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한동일 교수가 애국가를 반주했고, 아나운서클럽 박찬숙 회장과 회원 등 100여 명이 참가해 신뢰 문화를 향한 캠페인을 성원해 주었다.

채영신(전 KBS) 사무총장 KBS사우회 최초 여성 부회장 선임



2월 14일 KBS사우회 2022 정기 총회를 대체한 이사회에서 여성 부회장 제도를 채택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33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 부회장으로 임명되었다. 채영신 사무총장은 사우회에서 편집위원, 여성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해왔다.

이규항(전 KBS) 현대불교신문에 특별기고 게재



3월 9일자 현대불교신문에 '한국 문화 속 숨겨진 불교 코드'란 제목의 기고문이 게재되었다. 재가불자국문학도인 이규항 회원이 해박한 지식과 통찰력으로 불교 코드를 풀어내며 '종교란 근본으로 돌아가라는 가르침이다. 지금 이순간, 평범+일상의 행복을 맛보라'고 권한다.

김영숙(전 KBS) 대구예술대 홍보대사로 위촉돼



2월 8일 대구예술대(총장 허용) 홍보대사에 위촉되었다. 대구 동·남구, 경북 군위군, 대구지방조달청에 이어 다섯 번째 홍보대사이다. 1981년 대구KBS에 입사한 김영숙 회원은 2020년 정년퇴직 후 '아름다운 세상' 대표로 유튜브 '아나운서 김영숙TV'를 운영하고 있다.

이숙영(전 KBS) 작년 SBS연예대상 라디오DJ상 수상



작년 12월 18일 '2021 SBS 연예대상'에서 라디오 DJ상을 수상했다. 1979년에 입사한 이숙영 회원은 1987년 KBS 제2라디오 <FM대행진>의 DJ로 인기를 얻으며 1993년 프리랜서를 선언했고, 1996년에 SBS로 옮겨 현재 <이숙영의 러브 FM>을 진행하고 있다.

| 알 림 |

고맙습니다 (2021년 12월 11일 ~ 2022년 3월 10일 입금순)

연회비

원종배 성연미 오미영 윤지영 정흥숙 백연숙 채영신 차기정 김진형 이명희 황인용 어호선 이소연 최창섭 이후재 최평웅 김규홍 조건진 김상근 최선규 김재영 김현욱 권장수 황우겸 박찬숙 광영신 김상준 박용호 박민정 이계진 변순복 왕종근 문무일 민병연 조석영 김성길 김수홍 강미란 이연영 유영미 김재익 전미리 윤영중 전옥수 하지는 김윤한 정영희 이규항 방남순 김경숙 송현식 김주혜 윤희자 조길자 임화숙 신영일

광고 유치 황우겸 동아쏘시오그룹 300만 원
문무일 트러스트포럼 300만 원

후원금



원종배 20만 원, 성연미 20만 원, 황인용 20만 원, 김현욱 10만 원



박찬숙 20만 원, 조건진 20만 원, 이계진 30만 원, 문무일 20만 원, 김수홍 20만 원

축하합니다

황인우(전 KBS) 5월 21일(토) 12시 옥수동 성당 딸 변부용 양 혼인
최다솔(대전FEBC) 3월 1일 목회자와 혼인
박명규(전 CBS) 자승신(cpb) 2월 26일 아들 재영 군 혼인
김상아(TBS) 2월 20일 혼인

조의를 표합니다

황경재(전 MBC) 1월 22일 본인상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주 3월 31일 KBS 정년퇴직
유영미 3월 31일 SBS 정년퇴직
송영빈 2월 11일 포항FEBC 퇴사

Rebuild the Trust of the People

트러스트 포럼

☉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1길 32 ☎ 02 - 741 - 0815 ☎ 010 - 5221 - 3060

“ **믿게 해야 믿음 온다** ”

트러스트포럼의 신념(信念)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미래는

- < 정직한 한국인! >
- < 올바른 한국인! >
- < 친절한 한국인! > 입니다.

트러스트포럼은 시대의 '소금'이 되고
대한민국의 '산소'가 되기를 기약합니다.



상임대표	최재형
사무총장	문무일
공동대표	이종철
	심천보
	김유광
	박춘희

 **최재형 상임대표의 서울 종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선을 축하합니다!**



Zoom-in 국립국어원 신임 장소원 원장

국민의 국어 능력 신장에 기여하고 싶어요!

언어에서 말이 글보다 먼저이고 말로 소통해야 완전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하기는 매우 중요하다. 이에 방송의 최종 전달자인 우리 아나운서들도 언중言衆의 국어 교사로서 사명감을 다지고자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위치한 국립국어원을 방문했다. 한국어 발전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국립국어원장이 되길 기원하며 신임 원장과 특별 대담을 심는다.

글 편집장 이현우 (전 MBC)

국립국어원장 공모에 지원, 작년 10월 제2대 원장으로 선임되었다. 포부가 궁금하다.

서울대학교에서 거의 20년, 그 이전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10년을 보냈으니 30년을 학생들과 같이 지내온 셈입니다. 그 30년 동안 개인적으로는 학생을 가르치면서 얻는 보람도 컸고 국어학을 공부하면서 느낀 기쁨도 무척 컸는데요. 그러면서도 늘 우리 국민의 국어 능력을 신장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곳이 국립국어원임을 알게 되어서 원장직에 지원하게 되었고, 다행히 3년 동안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국립국어원에 대해 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와보니 국어원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다양하고 많은 일을 하고 있어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국민의 국어 능력 신장을 위한 사업과 더불어 표준국어대사전의 전면적 개편이나 언어문화 산업체험·연구개발센터의 구축, 해외 한국어 교원 인증제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한국어의 위상이 높아졌지만, 국민의 국어 능력은 그렇지 못해 걱정이다.

학교 교육을 마친 이후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국어 교육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읽고 쓰고, 말하고 듣는 영역에서 개인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지식사회로의 전환 등 언어 사용 환경이 예전과는 다르게 급속하게 디지털화하면서 정보를 효율적으로 탐색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하며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국립국어원은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게 국어 능력 진단 체계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인공지능이 사람의 말과 글을 분석하여 부족한 점을 진단하고 미흡한 부분의 능력을 더 키워갈 수 있도록 진단 체계를 구축, 국민 스스로 국어 능력을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국어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누리집을 통해 국어 관련 강의 콘텐츠를 제공하여 국민 누구나 국어 관련 내용을 학습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과 청소년 대상으로 한 국어문화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5년 주기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 국민의 국어 능력을 조사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초 연구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단음을 구사하지 않거나 맞춤법을 지키지 않는 문제 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어문 규정에 맞게 말하고 쓰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학교나 직장 등에서 수시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국립국어원은 공식 기관자인 ‘침표, 마침표’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와 같은 누리소통망(SNS) 매체를 활용해서 올바른 국어 지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반인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언어 사용 지침서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다양한 국어 교육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문 규범이 언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어문 규범이 우리말의 안정성과 체계성을 유지해 주는 장치로서, 그리고 소통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장치로서, ‘규범성’과 ‘현실성’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어문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것이 앞으로 국립국어원이 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맞는, 다양한 언어 현상과 정보를 제공하는 국어사전의 기능 개편은?

현재 표준국어대사전은 인터넷으로 서비스는 되고 있으니 1999년에 간행된 종이 사전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다행히 최근 국내외에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도 옥스퍼드 사전처럼 권위 있는 국어사전을 가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새 시대에 맞게 개편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표준국어대사전은 실제 우리 언어 생활에서 필요한 표제어 중심으로 재편될 예정입니다. 표제어도 더 꼼꼼히 분석해서 새로운 의미를 추가하고 더욱 정교하게 뜻풀이를 해 나갈 것입니다. 20세기의 것들로만

되어 있는 용례들도 21세기 소설이나 신문 등에서 사용된 용례 중심으로 재편할 것입니다. 의미나 표기가 비슷한 어휘들은 따로 모아서 세세한 용법 차이를 알려주어 차원 높은 국어 지식을 제공할 것이며, 풍부한 어원 정보를 제공하여 우리말의 과거와 현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표제어 정비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할 예정이고, 앞으로 5년 동안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말하기 평가 없이 한국어 능력 시험이 실시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시행하는 국립국제교육원에서 말하기 평가를 시행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국립국어원에서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언어 능력 평가를 직접 시행하지는 않지만, 이들의 언어 습득을 추적할 수 있는 학습자 말뭉치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해 한국어 학습자의 수준을 진단하는 도구 개발과 관련한 기초 연구들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가 추진 중인 가칭 ‘케이-티처’ 인증 프로그램은 국외에서 활동하는 교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세종학당 교원, 한글학교 선생님들이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을 마치고 케이-티처 인증 프로그램을 추가로 이수하면, 평가를 통해 ‘국의 활동 한국어 교원 인증 프로그램’ 수료증을 드릴 계획입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현지 대학에서 한국어 교육 관련 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에게도 참여 기회를 주어, 한국어를 배우던 학습자들이 선생님이 될 수 있는 토대도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세계인의 언어가 될 수 있도록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전 국민이 노력해야 될 부분은?

한국어가 세계인의 언어가 된다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선 우리의 국력이 커져서 세계인들이 한국어를 배워야 자신들의 삶에 이득이 되는 시대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문화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외국인들 스스로가 한국어가 궁금해지고 자발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지는 상태가 되는 것이겠지요. 다행히 이 요건이 다 잘 갖추어져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외국인들까지 앞다투어 배우려고 하는 한국어를 우리가 함부로 사용해서 그 본모습을 파괴해버린다면 자랑스러운 한국어를 세계에 전파할 수 없겠지요. 따라서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국어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상대방이 알아듣기 쉽게 정확하게 발음하고, 이해하기 쉽게 문법에 맞는 문장을 구성하고, 소통하기 쉽게 지나친 생략과 줄임말을 사용하지 않으려는 것이 그런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필

코로나19 탈출기! - 마스크에 갇혔지만 눈(眼) 호사를 누린 여행

글 / 박찬숙 회장



제목이 거창하게 걸은 건 코로나 감옥이 답답하고 끝을 알 수 없음이다. 한반도에서 가장 동쪽인 호랑이꼬리 부근 호미곶, '상생의 손' 위로 솟구치듯 떠오르는 태양을 만나기 위해 새해맞이가 아니건만 벌써 바람부는 바다 앞에서 4, 50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해가 떠오르자 너도 나도 스마트폰을 들었다. 지긋지긋한 코로나를 거둬가기를 빌었다.

구룡포에는 일본인 가옥 거리가 있었다. 수산자원이 풍부한 구룡포에서 그들은 어업 선박업, 통조림 가공 공장들을 하며 집단 거주지가 생겨났다. 일제강점기의 역사가 보였다. 일본식 목조 2층 가옥 그 당시 점포 등이 복원되어 있어 아픈 역사를 읽을 수 있었다. KBS 2TV에서 방영된 <동백꽃 필 무렵> 촬영지로도 알려져 있다.

밤이 되니 포스코의 야경이 찬란했다. 아무것도 없는 모래별판에 예지력과 과감한 판단으로 세운 포항제철, 형산강에 비친 포스코의 야경은 불꽃놀이 하는 듯 찬란했다. 갑옷을 입은 듯 든든했다. 역시 포항의 겨울 음식은 과메기다. 구룡포 과메기로 저녁을 먹었다.

다음날 경주로 가는 길에 양남에 있는 주상절리를 보았다. 포천에서 본 주상절리는 산에 붙어 있는 세로로 보이는 주상절리였다. 이 양남 주상절리는 바다에 누워 있었다.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된 현무암과 같은 화산암에서 만들어진 육각형 모양의 돌기둥들이 해안에 부채꼴 모양으로 누워있었다. 부채춤 추는 무희에 손에 들려 있는 부채 같았다. 이런 부채꼴

주상절리는 세계적으로 보기 힘들다. 물론 해안에 바짝 붙어 서있는 주상절리, 작은 동산 모양의 주상절리, 위로 치솟은 주상절리들도 바닷물에 이마를 적시며 있었다. 양남 주상절리군은 동해가 만들어질 당시의 환경을 말해 주는 지질학적 가치가 높다 한다.

유명한 언양 불고기집 가는 도중에 지수정 동굴나라를 구경했다. 진보라색 지수정은 우리나라에서만 생산되는 귀한 보석이란 다. 동굴은 길이 2.5km 5천여 평 규모였다. 지수정은 원적외선을 방출해 건강에 좋다고 한다. 언양 지수정은 색이 아름답고 진해서 귀하게 여긴다. 연한색 지수정은 브라질 등에서 생산된다고 한다.

여름에도 얼음이 어는 산속, 얼음골을 보러 가는 도중 유명한 언양 불고기로 점심을 했다. 숯불에 석쇠를 올려 굽는 고기는 부드러웠다. 양념에 비법이 숨겨져 있을 거다. 밀양에서는 얼음골 사과라고, 사과 파는 곳이 많았다. 사각사각 시원한 사과 한 상자를 택배로 붙였다. 높지 않은 곳에 있는 얼음골은 지금 기온에 얼음이 어는 게 신기하지는 않았다. 여름에 경험했어야 했다.

해안길 따라 신경주역으로 가는 길은 아름다운 동해의 바다를 우리들에게 선물했다. 2010년에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에 안동 하회마을과 함께 등재된 경주 양동마을은 시대를 거꾸로 들어간 듯 했다.

기차 시간이 남아 '경주는 역시 불국사야!' 하며 불국사, 다보탑, 석가탑을 보았다. 신라인들의 돌 다루는 솜씨에 감탄하며 일제가 손 댄 다보탑을 보며 나라를 잃으면 사람만 고생이 아니고 유적도 산하도 고통을 당한다는 걸 다시 느꼈다.

3박 4일 같은 딱 찬 2박 3일 여행은 비록 마스크에 갇힌 여행이었어도 눈이 호사를 누린 숨신 여행이었다.

2022년 2월 8일 경북 포항 호미곶에서 직접 촬영한 '상생의 손'



힘내라, 한국어! 15

한국어 'ㄴ·ㄹ'의 발음-7

왜란倭亂과 피난避亂은 언어적 구조의 차이로 발음이 달라진다

김상준 (전 KBS)
언론학 박사

난리를 피한다는 말이 '피난과 피란', 납치를 당한다는 말이 '피납과 피랍'으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피난'을 쓰고 있는 경우를 소개한다. 지난 2월 24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명령으로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났다. 매일경제는 2월 28일 영화 배우 라이언 레이놀즈 부부가 우크라이나 '피난민'을 돕기 위해 100만 달러 기부를 약속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AFP 뉴스는 2월 25일 다뉴브강을 건너 루마니아를 향해 '피난길'에 오른 우크라이나 '피난민'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1954년 유호 작사, 박시춘 작곡에 남인수의 노래 '이별의 부산 정거장'에는 '한 많은 피난살이 설움도 많아'라는 대목이 있다. 우리 선조들이 만들고 자연스럽게 써온 '피난'이라는 말은 우리 민족의 정서에 녹아들어 있는 말이다.

다음은 '피란'으로 쓰고 있는 신문이다. 조선일보 3월 4일 일본이 러시아 침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피란민'을 받아들여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고 보도하고 있다.

피난과 피란처럼 피납과 피랍도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2013년 5월 24일자 동아일보는 '북한 1969년 강릉발 대한항공 여객기 납치'라는 제목, 기사는 칼(KAL)기 '피납'의 충격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리고 SBS는 작년 8월 2일 뉴스 사진 설명에 '서아프리카 가나 해역 한국인 피랍' 추정 지점이라는 말이 나온다.

복합어: 피난避亂 / 피납被拉 [피난 / 피납]

단일어: 왜란倭亂 / 호란胡亂 [왜란 / 호란]

과거에는 피난과 피납이라고 했었다. 임진왜란과 정묘호란, 대란, 소란 등은 '란'으로 쓰고, 난을 피하는 것은 '피난', 납치를 당하는 것은 '피납'으로 쓴 것이다. 왜란倭亂은 왜倭가 일으킨 난리, 즉 왜의 '란'이다. 호란胡亂은 호胡가 일으킨 난리, 즉 호의 '란'이다. 그리고 대란大亂은 큰 '란'이다.

그러나 왜란, 호란 대란과 한 돌림으로 피란을 처리하면 안된다. '피난避亂, 피납被拉'은 2음절 단일어처럼 보이지만 왜란 호란과 달리 복합어적인 요소가 강하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풀이가 가능하다. 피난避亂→ 난리를 피하다. 피납被拉→ 납치를 당하다.

이 말들은 피할 피避와 어지러운 난亂, 당할 被와 끌어갈 납拉으로 '용인+목적어'처럼 돼있다. 이렇게 '란'과 '랍'이 두음 법칙의 적용을 받으면서 [피난, 피납]으로 쓰면, 발음도 자연스럽게 언어학적인 원리에도 맞는 말이 된다.

우리 선조들은 재난災難을 피하는 피난이라는 말과, 난리亂離를 피하는 피란을 하나로 묶어 '피난'으로 자연스럽게 발음했다. 피랍被拉이라는 말도 '피납'으로 했었다. 그러나 어문 규범은 선조들이 전해준 DNA를 거슬러 '피란, 피랍'으로 쓰도록 강요하고 있다.



방 | 송 | 가 | 소 | 식



이규원, 방우회 2021 바른말보도상 수상



KBS 이규원 아나운서가 작년 12월, (사)한국방송인 동우회(회장 정관영)의 2021 바른말보도상(심사위원장 김상준)을 수상했다. 1990년에 제정된 바른말보도상은 아름다운 한국어의 순화와 보급에 노력을 기울이면서 방송 뉴스의 품위 향상과 신뢰도 제고에 기여한 뉴스 앵커에게 수여된다.

이영호, <9시 뉴스> 클로징 멘트는 수어로



2월 3일, <뉴스9> 방송 클로징 화면에 앵커인 이영호 아나운서와 수어手語 통역사가 5:5 같은 비율로 등장했다. 같은 크기로 화면을 채운 이들은 “서로 조금씩 다른 모든 사람들이 수어로 다같이 반짝이는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9시 뉴스>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문장을 구어와 수어로 전했다. 제2회 한국수어의 날을 맞아, KBS 아나운서실 한국어연구부와 뉴스9 편집부가 함께 논의해 마련한 이벤트였다.

KBS 아나운서실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사람들을 배려하는 방송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할 예정이다.

CBS 박재홍, 아나운서부장으로 승진



2022년 인사이동에서 노조 위원장을 지낸 박재홍(사진) 아나운서가 아나운서부장으로 승진했다.

한편 김윤주 아나운서는 작년 12월부터 1년간 <아크 앤북 X 아나운서 김윤주>를 진행한다. 3월에는 아크앤북 신촌점(우측 사진)에서 손수 서점의 한 공간을 꾸며보는 일이 신기하고도 재미있었다는 김윤주 아나운서의 추천 도서들을 만나볼 수 있다.



김하은 <아침&> 앵커로 낙점 백다혜 <사건반장>에서도 활약



김하은(사진 왼쪽) 아나운서가, 새롭게 단장한 <아침&>의 진행을 맡았다. 2013년 첫 방송 이후 처음으로 단독 앵커 체제로 바뀐 만큼 유쾌하고 활기찬 김 아나운서가 제격이라는 평이 주를 이룬다.

더불어 <정치부회의> <속보 반장> 백다혜 아나운서가 <사건반장>에서도 역량을 펼치고 있다.



아나운서부, 황원찬 입사 20주년 감사패 전달



TBS FM <지금 우리는 새벽을 달리고>를 진행하는 황원찬 아나운서가 입사 20주년을 맞았다. 지난 1월 25일, 아나운서 선후배들은 황원찬 아나운서에게 감사패와 황금 열쇠를 전달하며, 지난 20년간 진중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청취자들과 만나며 후배들을 이끌어준 선배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했다.



정영한·박소영 아나운서 입사



작년 12월 20일 입사한 정영한·박소영 아나운서가 한 달간의 집합 연수를 마치고 1월 17일부로 아나운서국에서 교육받고 있다. 3년 반 만에 ‘프리할 아나운서’라는 컨셉트의 평가를 거친 신입사원의 활약이 기대된다.



최영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MC



최영주 아나운서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MC를 맡았다. 기부의 기쁨과 즐거움을 전하고, 기부 문화 확산을 유도하는 사회 공헌 프로그램이다. 최 아나운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기부 이야기를 따뜻하고 부드럽게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최지해, 인천시향 <2022 신년음악회> 진행



최지해 아나운서가 1월 14일 인천시립교향악단의 <2022 신년음악회>를 진행했다.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음악으로 위로하고 희망찬 새해를 기원하며, 정한결 부지휘자 취임 연주회를 겸해 오랜만에 직접 관객들과 만나는 자리였다.



극동방송 주파수 스티커 1만 장 보내기 운동



3월 2일 오전 7시 <좋은 아침입니다>를 통해 ‘주파수 스티커 1만 장 보내기’ 전국 특별 생방송을 진행했다. 극동방송 주파수가 적힌 스티커를 무료로 배포, 차량 뒷유리 등 다양한 장소와 물건에 부착해 방송사 홍보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 더 많은 청취자들이 극동방송을 알고 듣기를 기대한다.



김수환 추기경 탄생 100주년 특집 방송



이웃 사랑과 나눔은 물론 정의를 실천한 김수환 추기경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cpbc TV가 릴레이 토크 <서로에게 밥이 되겠습니다>를 방송했다. 김승애 아나운서가 전 가톨릭대학교 박승찬 교수, 김남희 교수와 함께 김 추기경이 남긴 가치를 삶 속에서 구현하는 이들의 따뜻한 메시지를 전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과 특별 대담 방송



신년 특별 대담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께 듣는다>가 장수연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TV·라디오를 통해 방송됐다. 종단 안정을 위해 기울인 노력과 백만원력결집불사의 성과, ‘전국승려대회’의 의미는 물론 대선 후보자에게 정책을 제안하는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제약회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회공헌은 신약개발이다”

왜, 동아쏘시오그룹은 글로벌 제약사도 포기한 치매치료에 최선을 다하는 걸까?

환자뿐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너무나 큰 상처를 주는
질병이기에 동아쏘시오그룹은 치매치료제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담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민간주도의 동아치매센터를 설립하고
치매의 근원적 치료를 위한 신약개발에 힘을 쏟고 있는
동아쏘시오그룹, 글로벌 대형제약사들이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도 실패한 치매정복이지만
동아쏘시오그룹은 그 불가능의 영역에서 완치의 희망을
놓지 않겠습니다. 치매의 아픔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동아ST  동아제약
 동아쏘시오홀딩스

